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순진



어린이주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나
천국에서 큰 자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한 사람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 18:4-5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가리켜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시하셨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주장을 포기한 사람이 곧 자기를 낮추는 자이고 자기를 낮춘 자만이 그런 자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을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높이는 문화에 젖어 있다. 남보다 우월한 머리와 재주, 가정형편과 외모를 자랑함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찬송과 기도 안에서 행복에 젖는 어린아이들이 줄고 있다. 오히려 바깥세상의 자기 높이기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다. 이 불행은 세상 어른들이 뿌려놓았다. 따라서 어린이날이나 어린이주일이 어린이들의 자기 높이기를 다시 한번 자극하는 문화가 가득해지면 안 되겠다. 오히려 어린이들이 예수님께서 표현

하신 어린아이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꾸밈진 선물과 음식도 좋고 산과 들로 나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거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찾는 것은 더욱 좋을 것이다. 어린이주일을 맞아 주님의 가족된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키우기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

어린이주일을 맞아 영아부에서 소년부에 이르는 부서들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기도의 시간, 인형극, 특별 찬양 등을 통해 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려는 행사들을 가질 예정이다. 성도들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저극히 사랑하는 생명들로 건강하게 자라나 온 땅을 예수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날을 꿈꾸며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

5월 27일은 교회 주변 집중 전도의 날 은 성도들의 참여 기대

전도위원회는 교구위원회와 협력하여 5월 27일(목)을 '교회 주변 집중 전도의 날'로 정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였다. 이날 1교구에서 5교구까지는 8-17교구의 지원을 받아 해당지역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전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6-7교구는 송파지역을 중심으로 전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도에 직접 참여한 성도들뿐 아니라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전도 대상 지역과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권세를 대항하여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전도의 불길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 준비해야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연말에 진행될 전도의 연합 초빙전도와 자선사업의 연결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하겠다.

전도훈련원 1기 수료식 지난 28일에

전도훈련원 제1기 수료식이 지난 28일(수) 오후 4시에 신교관 국제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소정의 이론교육과 수료에 걸친 전도 실습을 마치고 제1기생으로 수료하는 성도들은 총 34명이다(사단). 한편 제2기 훈련은 5월 12일(수)부터 시작된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99-1기 전도훈련원 수료식

제3차 성찬식 오늘 1-5부예배시

오늘 1-5부예배에서는 99년도 제3차 성찬식이 거행된다. 성찬의 기쁨은 준비된 영혼에게 일하는 것을 알아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한편 지난 주에 일교, 세례, 개종을 받은 성도들은 오늘 성찬식부터 참여하여 떡과 잔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들과 하나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장로기도회

5월 5일 기도원에서

본교회 장로회는 5월 5일(수) 충현기도원에서 일일기도회를 가지기로 하였다. 교회의 성숙과 교회 일꾼들의 헌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엮여지는 은총을 입할 수 있도록 성도들도 기도로 동참해야 하겠다. 한편, 장로회는 기도회에 이어 5월 정기당회를 가질 예정이다.

천안교도소 전도집회

5월 11일

교정전도회는 5월 11일(화) 천안교도소에서 특별전도집회를 갖는다. 그동안 교시반생과 관악대만생 각 70여명을 대상으로 매월 24일에 걸쳐 전도집회 및 말씀 교육, 음악 지도와 전도를 꾸준히 실시해 오던 중(당당 박양덕 전도사, 김유강 집사) 금번에 교도소 수용생 300명과 직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전도집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교정전도회 임직원과 천안교도소 사역팀, 그리고 요배종장단 등이 참여하게 될 금번 집회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교정전도회(구내전화 207)로 문의하면 된다(40명 내외).

성도들은 이 집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사경진 목사와 모든 행사 진행을 맡은 관계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많은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교도소 수용원생들과 직원들의 영혼이 아름답게 준비되도록 기도로 동참해야 하겠다.

다음 주일은 아버지주일 교회학교 각 부서 행사들

5월 9일 아버지주일을 맞아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는 부모님을 통해 입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다.

교사들은 아버지 초청찬치(영아부), 그림편지 선물 만들기(유아부), 감사선물 꽃 만들기(유치부), 부모님께 편지쓰기(유년부), 학부초초침 예배(중동2부), 부모님께 편지쓰기(중동3부) 등의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 공경하기를 배우는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영아부 · 소망부 총동원주일

영아부와 소망부는 5월 9일 아버지주일을 '총동원주일'로 지킨다. 소망부는 장기결석자들과 불신 자녀들과 친지, 대표교회 출석 자녀들을 초대하여 전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집회는 12시 15분부터 시작되며 강소는 갈릴리움이다.

충주중앙경찰학교 전도집회

5월 11일

경찰전도회는 5월 11일(화) 충주중앙경찰학교에서 전도집회를 갖는다. 경찰전도회는 경찰, 전경, 의경 등 총 3,200명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이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강사는 김인식 목사이다. 출발시간은 당일 오후 1시 30분이다.

금주의 영성훈련

14교구
5월 6일

5월 기도원 담당

김동하 목사
(대학부 지도)



김 장 인 목사

우상숭배의 공허함에 대한 하나님의 변론

(이사야 41:21-29)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1. 하나님께서 우상의 정체를 폭 로하십시오

(1) 아픔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소송을 하라고 하십니다

“나 어호와야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아픔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21절)

하나님은 우상들과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선 선전 포고를 하십니다. “우상들이야, 너희가 아픔의 왕인 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면 소송을 해라. 내가 시정해 주겠다. 단 소송장을 내는 데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2) 우상은 미래사를 진술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의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우상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22, 23절)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상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은 금강석은 온갖색을 부어 만든 은금덩어리에 불과하며 목수와 석수가 망치로 두드리고 메질하여 혼들리지 않게 세워 놓은 목각, 석각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상이 어찌 지각이 있어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판단하며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그 숭배자들에게 우상이 지각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상의 뒤에 숨어 역사하는 마귀는 미래의 일을 모릅니다. 악마는 지나간 일을 전부 알고 현재의 일도 알지만 미래의 일은 알조차도 일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일은 하나님이 비밀 속에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악마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악마가 저 과거를 안다고 하여 미래의 일까지 알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3) 우상은 화와 복을 좌우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도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23절)

“우상이 내가 정말 참 신이라면 내가 내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인데 너는 그 저주가 너를 섬기는 백성에게 일관되도록 막을 수 있

느냐? 있다면 그 증거를 내놓아” 이것이 세번째 증거를 내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게 화를 내리기로 작정하신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많은 우상 중에서 어떤 우상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한 가지도 막지 못하였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의 말아들부터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내가 복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네가 화를 줄 수 있느냐? 있다면 한 번 해 보아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역적들이 다니엘에게 화를 입히려고 사자굴에 던졌으나 다니엘은 살아났고 오히려 역적들은 자기만 아니고 석구들까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 사자의 발이 되었습니까. “우상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소송을 하여라 나는 아픔의 왕으로 내 백성을 괴롭히는 자에게 화를 내릴 것인데 내가 그 화를 막아 줄 수 있느냐? 도 내가 미워하는 내 백성에게 복을 내릴 때에 내가 그 복을 못하겠다고 대신 화를 줄 수 있느냐? 있다면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은 우상과 그 숭배자의 무능함을 공격하십니다.

(4) 우상은 헛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24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신성을 부여하고 숭배하는 자는 가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택하는 자는 가증한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뒤에 서 악마가 우상 숭배자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상에게 물려 오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데 그 형편이 어떠합니까? 첫째로 악마는 사람을 육신생이로 만듭니다. 온갖 방법을 써서 물질에 대하여 명예에 대하여 권세에 대하여 이성에 대하여 욕심을 일으켜 육신생임을 만듭니다. 둘째로 악마는 사람을 교만쟁이로 만듭니다. 죽은 나무토막이 열에 이르러 썩는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로 악마는 이유없는 거짓말을 시킵니다. 넷째로 악마는 사람을 게으름뱅이로 만듭니다. 다섯째로 악마는 쓸데없이 강제를 일으킵니다. 여섯째로 악마는 반역자를 되게 합니다. 자기의 양심을 거스리게 하고 부모님과 형사들을 거스리게 합니다. 악마는 언제나 거스리 반역하게 합니다. 일곱째로 악마는 잔인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악마의

알잡이가 되어 헛된 고생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그밖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상과 그 숭배자들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후에 될 일까지 모두 계획하시고 그대로 진행시키시는데 그 것을 반대하여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약자가 바로 살리다가 억울함을 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몇 배의 상을 주시고 하나님나라에서 더 많은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와 여러분은 꿈에도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신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이 내신 햇빛 밑에서 자란 곡식을 먹으면서 악마의 알잡이가 되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한 사람’을 세워 우상을 심 판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1)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복병에게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돌은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25절)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고레스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유약에서 고레스 왕을 ‘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약속을 주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보내시므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인 고레스 왕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본체인 예수님이 갖춰 제사장인 우상과 그 숭배자들에게 심판하십니다.

(2) ‘한 사람’을 통하여 심판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25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심판하시는데 그 대상은 방백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방백’이란 도지사급 이상의 관세가 당당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향락을 누리기를 위하여 무슨 짓도 합니다. 이때에 ‘당신’과 그런 것을 합니까?라고 충고하거나 책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원해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을 벌할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벌하겠다. 악을 행하면서 뻔뻔스럽고 당당한 자들이여 한 사람을 보낼테니 두고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3) ‘한 사람’이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한

니까
... 최심복왕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을같이 밟을 것이나”(25절)

고레스 왕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나타나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집을 지을 때에 화를 바르기 위하여 화에 이직 지정을 배합하여 이기는 데 한 번만 아니고 열 번 스무 번 스무이든지 놓습니다. 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흙을 밟아 누기까지 수없이 밟아 놓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렇게 치해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이길 때에 흙이 “나를 왜 밟습니까? 그렇게 못하듯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할 때에 ‘당신’과 나를 이렇게 합니까? 입을 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일 때에 돈이 있고 세력이 있어서 약자를 괴롭히면서 잘 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세우면 누가 감히 말 한 마디만큼 하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듯이 제사장인 예수님은 주지성이 빛나는 말로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여의없이 밟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 마디 말도 못하고도 대신 화를 줄 수 있느냐? 하신 것을 시켜서 내가 우상을 심판하겠는데, 말할 자가 있으면 말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3.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을 따라 가는 자는 생수의 샘을 버리고 사막에 가서 물을 얻었다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자기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로 숨쉬면서 하나님의 원수의 알잡이가 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에게 싸움을 거는 것은 제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으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아픔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인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믿거나 우상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믿으셨고 그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탁하고 일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일을 끝내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람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거짓없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준 비하신 복을 주실 것입니다. ■



김 성 문 목사

세상을 사랑치 말라

(요한일서 2:15-17)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치 말라

오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15절).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 불가호환합니다. 만일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하나님 위에 두는 것으로 십계명의 제 일 계명에서 단호하게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출 20:3).

그러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이 명령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고 명백하게 ‘사랑치 말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으로 좇아온 것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텔레비전과 흥미있는 프로그램들, 영화, 산책, 먹고 마시는 것, 휴가, 이른 아침 5점이나 10분쯤 잠깐 눈분위기, 새로 나온 자동차와 옷, 그리고 전지되어 있는 제 컴퓨터는 어떻게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을 여러분의 친구가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즐기는 놀이나 휴식시간은 어떻게습니까?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나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16절). 따라서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즐거움과 쾌락을 약속하는 것들에 대한 갈망은 그것이 신적일 것이긴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나 세상으로부터 쫓아 나온 것입니다. 이것들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갈급하게 좇아갈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17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외에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뿐 아니라 완전히 이해해야 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나큰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드러나는 어떤 행위 이전에 우리를 자아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단순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여러 행위들로 뒤범벅이 되어 기독교의 근본 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복종이나 변화도 없으면서 단지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전적인 돌이킴, 곧 철저한 변화가 없이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경계케 하십니다.

희생하신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유일한 속제물이십니다(롬 3:25). 온 세상은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와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 곧 예수님과의 영원한 동기로 인도합니다.

영광으로 인도하는 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눈을 돌이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속히 지나갈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제는 돌이켜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고귀하신 피가 당신을 씻어서 의롭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의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루는 영광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조금도 믿지 마라. 그에게는 아무송이 없었으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이 있다면 그대들을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할 것이니와 저가 곧 가운데 계신 것이라 우리도 믿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바로 사랑이 있고 그 아들 예수와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5-7). 아멘!

당신은 이 세상과 이 세대에 속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부디 임시적이나 사라질 바될 것들, ‘여기’와 ‘지금’에 속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자기들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내로 대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의 뜻과 같은 하나님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세상을 사랑치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눈을 돌이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속히 지나갈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제는 돌이켜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고귀하신 피가 당신을 씻어서 의롭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의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루는

영광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명령

한편 생각해 봅시다. 자신을 죄인의 과수로 고백한 바울은 우리를 향해 그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자기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마 16:24). 이 말씀들은 분명히 우리들의 자아와 관계를 있습니다. 자기들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간 순간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분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자아로 하여금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방치하는 순간 거기에는 실망과 슬픔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제하심은 벌이 되고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부인은 전적인 돌이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자기들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백함으로 깨끗케

물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심지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부정한 존재로 살아가신 이는 오로지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씻어지야 하고 깨끗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2:1).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순간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언자를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사 예수 그리스도니라”(요일 2:1).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는 대언자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엄에서 우리를 위해 말하며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아름다워라
복음 들고 '수지'를 걷는 자들의 발이

지난 4월 15일과 17일에 국내외의 국민선교부와 17교구가 연합하여 지역 전도 초청 집회를 가졌다.

수지 가구단지, 여기 저기를 돌리보아도 가구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유리를 통해 보이는 상점 안에는 가구들은 하나같이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다. 그러나 그 뒤안길에는 가구들을 만드는 열악한 공장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밤이 늦도록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없이 많다.

수지는 우리 총현교회의 17교구에 속하는 지역이다. 지난해부터 국내외국민선교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수지지역, 곧 17교구와 연합하여 전도초청찬치를 두어 차례 해왔다. 무엇보다도 17교구의 구역식구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국내외국민선교부는 많은 격려와 힘을 얻곤 했다.

지난 4월 17일(토)에도 우리는 또다시 연합하여 수지 가구단지의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며,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의 경우는 처음으로 실시한 지역초청 전도모임이었다. 국내외국민선교부는 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왔고, 이를 전인 4월 15일(목)에 수지지역에 전도를 나갔다. 오후 7시 교회 아엔



홀에 모여서 기도회 및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 출발하여 수지가구단지에도 도착한 시간은 오후 8시 40분. 그곳에는 이미 17교구 집사님들이 여러 분 나와 계셨다. 30여명이 함께 모여 만나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후 각 4명으로 나누어서 나라별로 전도를 했다. 늦은 시간임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일을 하고 있거나, 이제 막 일을 마치고 저녁에 전도하고 하는 상황이 때문에 적당하게 하는 좋은 환

경은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하셨다. 교회에서 볼 때와는 달리 일터로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직접 만나는 것에 그들은 굉장히 기뻐했다. 복음 들고 수지를 걷는 자들의 발이 이제 그리 아름다우니! 처음 합류하신 17교구 집사님들도 전혀 거부감을 갖지 않고, 기쁨과 사랑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다가갔다. 전도를 마치고 10시에 집합하기로 했지만, 영혼을 구하려는 열심으로 거의 11시가 다 되어서야 모였다.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며 서울로 떠났다. 차가 이미 끊어진 시간이라서 차 있는 집사님들이 집까지 안전하게 배려해 주셨다. 12시가 넘은 그 와중에도 외신부의 모 집사님은 맥으로 잠깐 들어가서 따끈한 차를 대접하는 아름다움도 있었다. 복음전하는 일

만큼 우리의 영혼을 기쁘고 하나되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았다. 목요일에 뿌린 씨앗을 거두러 4월 17일(토) 오후 7시 30분에 수지의 서울식당에서 그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린 후, 그들이 좋아하는 닭도리탕을 먹으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필리핀, 파키스탄, 중국 등 65명이 모였는데, 마치 전국난 차를 방불케 하는 것 같았다. 이 일로 다음날 주일에는 방글라데시인 9명, 중국인 1명, 몽골인 3명이 나왔으며, 그 다음 주일에는 필리핀 지체 9명이 새로 나왔다. 국내외국민선교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지역전도모임이 수지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쳐졌고, 귀한 열매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이 일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할 것은 이들이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접촉했던 영혼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수지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경기도 광주와 용인과 의정부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 국내외국민선교부에서는 수지지역 전도모임처럼 당 지역에서도 이러한 전도지역모임을 갖기를 소망하고 있다. (정영철 전도사)

'99 여름 단기선교 지원자 모집 마감

99년 여름 단기선교팀 대원 모집이 지난 주일(4월 25일)로 마감되었다.

단기간이지만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여 방학기간 또는 여름 휴가를 하나나 앞에 드리고자 하는 100여명의 충현의 젊은이들이 지원하였다. 선교위원회의에서는 단기선교 지원자 모집을 5월 21일(금)·22일(토)에 총현기도원에서 가졌 예정이다.

단기선교 대원으로 참여하고자 지원서를 낸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불쌍한 인도하심을 받도록 은 교회가 기도로 후원하기를 기대한다.

전국일꾼 양성

선교를 위한 우리들의 작은 손길

중동부에는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 그 가운데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소개한다.

— 중동1부에서 39만 친구들의 출석률이 가장 우수하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알립니다. 이 집에 대해서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심 : 저희가 처음부터 100% 출석을 한 것은 아니에요. 한 친구가 잘 못나왔는데 우리 모두 그 친구를 사랑하고 잘 챙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동준 : 우리 선생님이 참 좋아요.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요, 잘 챙겨 주세요.

(39만 친구들 일제히 박수를 친다.)

정인 : 저희 반은 반장, 부반장이 있어서 선생님을 잘 도와드리고 친구들끼리도 잘 도와주어요.

선생님 : 중동1부에서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서로 돕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반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참 기뻐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용돈의 일부를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선교헌금을 낸답니다. 아이들이 참 예쁘고 순수하죠.

이림 : 용원이는요, 몇년간 모았던 용돈을 선교헌금으로 냈어요. — 오, 그래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친구들이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나요?

용원 : 겨울수련회때 '나도 돕는 선교사'라는 영상물을 보았는데, 천원만 있어도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굶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



김 법 진(중동1부 교사)

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정성이 예수님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반 친구들이 그때부터 자기 용돈의 일부를 모아 함께 헌금하기로 한 것이죠.

— 친구들은 '선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림 : 멀리 있는 사람 들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예요.

태선 :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용원 : 우리의 조그마한 헌금으로 저 멀리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선교라고 생각해요.

호심 : 혼자 있고 외로워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 미지마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다면 이 이야기해 보세요.

이림 : 저는 선교 만화를 그리고 싶어요. '선교 만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은혜 :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정인 : 저는 유능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 : 우리반을 위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예요. 저희반이 처음엔 9명이었는데 지금은 15명이랍니다. 지금 20명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답니다.

—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꿈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39만 친구 여러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냐구!”

윤 숙 희(집사, 유년부 교사, 12교구)



○ 년부 친구들이! 겨울내 움츠렸던 나무들이 어느덧 푸르게 잎을 내어 제법 푸르해졌구나.

이제 제법 의젓한 모습이지만 때로는 개구쟁이로, 때로는 천진난만한 천사의 얼굴로 다가오는 너희들을 보면 마치 푸르고 싱그러운 나무를 보는 듯 가슴이 벅차다. 아까만 사람 한 알 선생님 손에 꼭 쥐어 주고 달아나던 참미, 멀리서 함박웃음

으로 달려와 치마폭에 안기는 귀여운 하녀, 꼬깃꼬깃 겸한 한 부끄러움 듯 내밀린 재방아, 색색으로 모양엔 어떤 편지에 '나 선생님이 잊을게요'라고 적어 주던 해림이.

이렇듯 사랑스런데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씩씩하고 바르게 자라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의 사람으로 자라거라. 이웃에게 빛이 되는 사랑의 사람이 되거라.

선생님들이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지은 참샘이 들어볼래?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야.

“유” 유년부의 선생님과 학생들은 “년” 연두빛 새하얀 모습의 자녀!

“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황영림 선생님)

“유” 유년 같은 맑은 유년부 친구들

“년”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들

“부” 부지런히 배우고 따라 감시자! (안순옥 선생님)

“유” 유년하듯 맑고 맑은 우리 어린 양

“년” 연두빛 새하얀 모습의 우리 어린 양

“부” 부드럽고 사랑스런 주님 닮은 모습 (송영복 선생님)

어린이주일

5월은 풍요로운 나라. 우리들은 자라듯, 모를은 어릴수록, 우리들 생애.

어린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어린이주일. 봄 날에 두고 긴 달밤 더워진목사님과 우리들의 아이들이 만났을 거 같아요. 토요일 오후 5시, 하문, 배방(소남동), 불매, 재동, 주지, 예하(초동동) 어린이들과 지도 교사 두 분이 조금은 긴장된 모습으로 목사님의 사직서를 읽었다. 목사님은 받은 몫으로 우리들을 맞이해 주셨고 굳어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과자를 나눠 주셨다. 목사님은 언제나 아이들의 이름을 외친다 목사님은 "재동아? 재하 맞지나?" 하셨다. 아이들이 목사님께 궁금해 하는 것 많을까? 그리고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셨을까?

동병: 목사님은 평소예 필 하세요? 어떻게 지내시지요?

목사님: 목사님은 너희들과 똑같이 숨쉬고 밥먹고 ... 나와 같이 살고 싶는데 목사님은 일이 많아. 책만 읽어 보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기도원에 가고 ... 어때 답이 되었니?

삼우: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뭐가 힘드세요?

목사님: 너희 생각에 교회가 작으면 힘들지 않을까?

만나고 싶었어요
미래의 천국일꾼들과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



안
힘들 것 같아? 아니야, 그것도 힘들어. 교회야 크면 크면 힘들어. 왜냐하면 교회를 돌본다는 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늘 방해해 해. 하지만 성령님께서 힘주시면 하나도 안 힘들어. 보소가 한 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들기만 하면 된 것처럼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면 하나도 힘이 안 들어.

재동: 하나님께 외계인을 만들었을까요?
목사님: 목사님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안해. 성경 안에 외계인 이야기가 있지. 없네? 없지. 성경 안에 천사 이야기는 있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있지.
주지: 천국하고 지옥은 어떻게 달라요?

목사님: 쉽게 말하면 지옥은 추위가 알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인데. 그리고 천국은 착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야.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사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져 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이때, 대답이 됐니?

어린이들은 여백도 두드림도 질문을 했고 목사님은 어린이들이 많이 쉽게 말씀해 주셨다. 주일 은혜를 위해 힘과 도와요라는 사직서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소중하고 미래의 천국일꾼들을 만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나가는 어린이들의 손을 인양하여 붙잡아 주시며 배웅하시든 목사님과 어린이들의 얼굴이 밝았다. (이수경)

예수님이 좋은
예배드리는 것이 좋은
초등부 조은경 어린이



초등부의 조은경(4학년, 목동초등학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좋고 교회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마냥 즐거운 아이이다. 사는 곳이 충랑구 목동인 지라 주일 교회에 나오기 위해 은경이는 토요일 저녁 9시만 되면 잠자리에 들고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를 나오기 위해 7시경 교회를 향해 출발한다. 이때는 은경이를 우리 교회로 인도한 친구 조인정네 가족들과 함께 온다. 은경이는 5살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집근처 교회를 다녔다. 그러던 중 한 가족같이 지내는 인경이와 교단 밖에서 우리 교회 성경학교에 참석하게 되었다. 말씀도 배우고 제미하는 여아개입이라는 공동체 훈련에도 참석하면서 교회개척이라는 다른 교회 생활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99년 1월 10일에 초동부에서 등록하게 되었고 4월부터는 찬양부에서 찬양대원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미용기술을 가진 아버지는 IMF로 한동안 직장을 잃었다가 얼마 전 새 일터를 구하고 어머니는 중풍으로 인해 왼손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주일이 아침이면 일찍 교회에 나와 예배를 청탁한다. 찬양 연습을 할 준비를 돕는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분반공부시간에 배울 공과도 이해해준다. 이런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은경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넘친다. 담임은 말하고 있는 장성의 선생님의 말이다. "은경이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명랑합니다. 친구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칭찬할 줄 아는 선한 마음을 가졌어요. 분반공부때는 친구들을 대표해서 기도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를 좋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은경이는 요즘,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왼손 신령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는 것과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구원, 그리고 자신의 신령이 더욱 단단해지도록 기도하고, 장차 간호사님과 교사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장래희망인 은경이가 항상 하나님과 사랑 앞에 정진하는 사람으로, 또 뜻을 잃지 않는 사람과 같이 될 줄로 생각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재물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이종호)

새싹들의 속삭임

힘들 땀 주님을 먼저 찾으라고 하신 엄마



유 선 아(초년부)

항상 저의 고민을 말하면 해결해 주시는 엄마, 전 항상 다정한 친구처럼 대해 주시는 엄마가 너무 좋아요. 엄마의 고민해결법은 항상 예수님의 사랑과 연관이 있어서 엄마께 고민을 물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엄마께서는 항상 힘들면 주님을 먼저 찾으라고 하셨죠? 그 때 때문에 항상 주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꼭 제 친구 같아요. 예수님은 이인이를 참 사랑하셨죠? 예수님보다는 못하겠지만 저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한 사 라(초동부)

저는 요즘 성경책을 잘 펴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일에 요절을 잘 외우지 않고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일을 자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머리를 주셨는데 아마도 후회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까지 하셨는데 제가 이런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교회의 생활과 학교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신앙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니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하게 해 달라고 ...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꼭 복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박 효 선(초동부)

할아버지께,
제가 다니는 교회는 성경을 읽은 만큼 체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읽고 싶은데 잘 읽이지

지 않아요. 또 읽으려고 하면 뜻이 이해가 안될 때가 많고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친구들 대부분이 부처님을 믿고 있어요. 제 책도 불교 신자예요. 전도를 하러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고 친구들이 "왜 믿어야 하냐?" 하며 따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할아버지, 제가 우리 반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기록해 주세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어요.

모두가 예수님만 믿어 지구에 평화가
퍼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임 헤 림(초년부)

예수님께,
전 그동안 나쁜 일 한 게 많습다. 다. 언니와 싸운 일, 심부름을 언니 보고 하라고 한 일, 동생 때린 일, 그밖에 또 많아요.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고 나쁜 일도 안하겠어요. 예수님만 약에 지구에 사는 사람 모두가 예수님만 믿어 지구에 평화가 퍼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을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아 가난한 사람을 돕고 전도할 친구가 생기면 재빨리 전도해야겠어요. 우리 교회에 계신 선생님도 고마우시고 부모님께서 저희를 키우시느라 힘드신 것을 잘 알아요.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리요. 예수님, 항상 예수님께 찬양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충현교회에 다니는 것이 참 좋아요



배 성 우(초년부)

예수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 하나인 충현교회에 다니는 것이 저는 참 좋아요. 반드시 큰 교회라서보다 저희들의 교회학교 선생님과 목사님 말씀, 찬양대의 찬양, 이런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로 인하여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것으로 믿는 사람은 전심으로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되길 참 좋겠어요. 저도 다음에 김성환 목사님 같은 주님을 영방되게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예수님이 지켜주세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조 철 수(목사, 13교구, 신촌가정부 지도)



그림/황원진

우리 집에는 아이가 셋 있습니다. 다섯 집 아이들도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아이들이 저를 유난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3층인데 제가 피곤하여 집안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위에서 창문 밖으로 나다보며 괜히 아빠를 부르곤 합니다. 밖에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현관문으로 들어서기라도 하면 집안은 온통 기쁨의 환호성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셋째 아이는 “아빠, 아빠”를 연발하며 계속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빠가 안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느끼는 큰 기쁨과 행복이요, 훌륭한 피로회복제입니다.

저는 이 귀한 선물, 상급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를 향한 세상에 서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 정치적 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마다 해답은 분명하게 떠오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교육 방법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사회의 분위기와 환경이 다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교육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자녀를 위한 기도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위주의 기복적인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녀 양육 방법은 외면된 상태에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시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말씀으로 구원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우리집



전 재 민(중동부2부)

우리 가족은 한 집에 사대가 모여 산다. 먼저 제일 꼭대기 4층에는 중조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장로님, 외할머니 권사님이 살고 계시고 삼촌에는 하나뿐인 외삼촌과 지금 초등부 교사로 봉사 중이신 외숙모가, 그리고 바로 이층에는 아버지 전명수 집사님과 어머니 마미와 집사님, 고2인 형 전재영과 중2인 바로 나 전제민이 산다. 게다가 막내 이모부와 막내미모가 아주 아주 가까운 거리인 같은 동네에서 몇 분 걸리지 않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많은 어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척 재미있어 하시고 부러워하신다. 가끔씩 찾아서 참 좋겠다, 물론이다. 먼저 가장 좋은 점은 언제나 맛있는 것을 같이 도와서 하고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 갔다 오면 배가 무척 고프는데 어디서 서너 대가 먹을 것이 많이 있고 장만들이 주신다. 한 집에서 맛있는 것이라도 하면 문을 열고 층계로 나와서 이쁜만

부르면 언제든지 같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다. 그리고 오늘날이 우리 어머니가 시원한 물결을 하면 우리 식구들만 아니라 할아버지도 이모네 식구도 같이 나올 수가 있어서 더욱 맛있었다. 늘 가까이 언제나 같이 나올 수 있는 식구들이 있어서 참 좋다. 전에는 심부름을 할 때 멀리 있는 할아버지네 집에 가기가 힘들어서 싫었는데 같은 건물에 사니까 단 2층만 올라가면 계시기 때문에 훨씬 편하다.

주말 아침에도 우리 집에서 나만 일찍 가야 할 때에도 외할아버지나 외삼촌하고 같이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서 지각도 안하고 좋다. 이런 생활의 편리함만 아니라 서로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같이 이모도 힘이 되어주곤 한다.

또 우리 가족의 자랑인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하는 시간은 진짜로 멋있다.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어머니는 알토, 아버지는 테너, 외삼촌은 베이스, 항상 오이만 찬양을 이끄시는 외할아버지, 중동부 찬양대에서 베이스를 하고 있는 나, 그밖의 식구들은 기쁘게나 소프라노를 하면 멋진 화음으로 찬양을 할 수 있다. 작년에도 금요교회 대가족이 합체 ‘행글 나날 소리로’ 찬양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난다.

같이 산다는것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다. 항상 찬양하며 즐거움이 넘치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시인의 전도

김은 양(집사, 2교구)



옛날에 어떤 시인이 있었다. 그 시인은 예수님을 아주 좋아했다.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한 ‘시’를 쓰며 일으로는 언제나 찬양을 불렀다. 그러던 어느날 한 친구가 찾아왔다. 그날도 시인은 맑은 시냇가에 서서 하나님의 지으신 우리와 신비함을 찬양하고 있었다.

“여보게 친구! 자네가 늘 찬양하는 그 예수가 누군가?”

“그분은 멋진 분이시지. 당신 몸을 희생양으로 내어 주고 인류를 죄악에서 구하신 승조하고 거룩하신 분이시라네.”

“그래? 자네 그런 분을 어떻게 사귀었나?”

“부러웠나?”

“부러웠지.”

“그럼, 자네도 한번 만나 볼텐가?”

“그래주겠나?”

“그럼, 날 따라오게나!”

그리고 시인은 친구를 성령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아무도 없잖나?”

“자, 여기 와서 앉아봐. 그리고 나를 따라 해봐.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자, 나를 따라해. 예수님 나는 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셔도 좋습니다. 구원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눈을 뜨게나. 아, 여보게 눈을 뜨라구. 이바 눈 떠.”

“그냥 내버려 두게. 나는 좀더 있겠네 마음이 편해. 괜히 평안해.”

그렇습니다. 때는 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날 전도하기 아주 좋은 계절이 아닙니까.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이 늘 기쁘게 찬송하며 빛난 생활을 하면 주위의 모든 분들이 이 행동을 보고 따라올 겁니다.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전도가 되며 스스로 믿는 마음이 생기지요. 덕을 세우며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생활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4·25중동원 주일을 마치고

조문 찬(목사, 고평부 지도)

영화 ‘원틀러 리스트’ 중 내게 가장 깊은 감명을 주었던 장면은 주인공 오스카 윈틀러가 자신이 살려준 1,20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할 때 그가 조금만 더 열심히 내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후회하며 오열하는 장면이었다. 자신이 타는 자동차를 팔았다면 더 많은 복음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인데 “저 자동차가 뒤질래, 저 자동차가 뒤질래” 하며 더 많은 복음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오열이었다. 이 장면은 아직도 나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오스카 윈틀러의 사람을 살리지 못한 데 대한 절규가 나에게도 있기를 영화와는 다른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깨어날 것인가? 나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저주조부터 건져내고 있나? 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얼마나 절규하고 있나? 천국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나라고 물으시면 부끄러워하고 대답할지 부끄러워할 때가 많다.

이런 생각이 기초가 되어 고평부의 4·25 중동원은 준비되고 시작되었다. 먼저 대선자를 작정했고, 913명의 대선자들을 전도하여 초청하기로 작정하고 릴레이 금식기도와 특별금식기도와, 특별세례기도와를 통하여 기도를 준비했다. 두 달을 넘게 학교전도를 하였고 물질을 무자하고 품으로 헌신하였다. 이번 행사는 ‘비전 7000 명 복음화’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남다른 각오로 시작한 중동원이었다. 학생들의 태도도 사뭇 진지했다. 한 친구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였다. 교사들도 매일 새벽 출근 전에 아침기도 기도하고에 들러 전도지를 뿌리고 격장으로 향했다. 마지막 24 일에는 리서설과 갈릴리움 세 친구 맞이 단장을 무려 8

시간에 걸쳐서 하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드디어 25일이 되었다.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그동안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전했던 친구들을 데리러 올 예정이다. 그리고 집회시간에 216명의 세 친구들 등복을 하였다. 목표 1,000명에 비하면 훨씬 많은 숫자이지만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216명이나 보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다. 갈릴리움이 가득하게 채워지고 더 많은 세 친구가 우리 집을 기도했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우리의 도너와 복음의 열정이 부족했다는 것을 고백한다.

그러나 4·25중동원이 끝나고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 그것은 학생들과 교사들의 심령 속에 영혼을 사방하는 구령의 열정이 불꽃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달일 갈릴리움에 들어올 때 울면서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전도한 친구들이 약속을 어겨서 마음이 아프고 오지 못한 그 친구가 불쌍해서 그런 것이었다. 이들이 영혼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는 한 복음의 열정은 지옥될 것을 믿는다. 그동안 전도하는 일에 소홀했던 교사도 복음의 열정이 회복됨으로 자신의 소망을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 이것이 4·25중동원 전도일이 지난 후에 일어났던 변화이다. 이제 전도의 특별적인 운동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이다. 벌써 많은 선생님들이 “늘 충동적인 다음 주부터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뜨거운 가슴으로 말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는 헌신된 학생들이 많이 나오도록 교회와 중보회 주시기를 바란다.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지체 소식

영아부
아버지 초청잔치

우리 예수님 안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가득한 달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바르고, 지체롭게 키우기 위해 영아부 아버지 초청잔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아기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두 함께하시는 아버지 초청 잔치에서 참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시길 원합니다.
날: 1999년 5월 9일
1부: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곳: 영아부 예배실(선교관 103호)
(송혜경 통신원)

유치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초록잎들이 춤추는 화창한 봄날에 유치부 어린이들의 찬송소리가 예배실 창문까지 힘차게 울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는 귀한 말씀을 전도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의 한 영혼 한 영혼에 창조주 하나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울려 퍼지듯 평생 하나님님을 경외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최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의 모습과 전지하께 귀기울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5월 7일(금)에는 유치부 찬양대 어린이들의 금요찬양 특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혼의 찬양으로 열심히 드려지길 기도해 주세요. (조인혜 통신원)

초등부 소식
성경암송대회

초등부에서는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주일에 성경암송대회 예선을 통해 과별로 1명씩 대표를 뽑아오는 본선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성경은 '요한일서 3장' 전장인데 각 과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그 중에서 1명씩 선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사랑하고 또 친구들의 마음과 세기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특별 순서로 한 반 친구들이 (1과 3반) 장세복 선생님 지도하에 3절씩 돌아가면서 24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암송할 분량이 다소 친구들에게 많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을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암송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희숙 통신원)

중등1부

충동원 전도주일

지난 주일은 충동원 전도 주일이었습니다. 이날 절교 말씀은 김진석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에 대하여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예수님을 대 평생 구주로 모실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위의

친구들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이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전도주일을 위해서만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항상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김범진 통신원)

중등2부

위로와 은혜 넘친 교사기도회

중등2부 교사들은 4월 23일 금요일 회 주 기도원에서 교사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선생님들은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숨김없이 적극적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확고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롭게 느꼈다. 주일 1부예배 후 성경학교 대회를 개최하였다. 과별 대항으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고 학생들이 빨리 대답하는 스피드게임으로 진행되었다. 각 과별로 교사와 학생이 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한편 5월 9일에는 학부모 초청예배를 드리기로 하였다. (조희경 통신원)

청년2부

오늘 초청전도잔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청년2부는 오늘 12시 30분 교육관 514호에서 초청전도잔치를 실시합니다. 2부예배 후(10시) 분당 일에서 청년2부 회원들의 찬양과 함께 종선 2,000개를 나눠 주면서 청년2부를 전 교단에게 소개하고 초청전도회원들과 함께 전영준 목사님의 로마서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한 면회회에서 준비한 떡과 과일 등으로 풍성한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2부에 관심있는 30대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백영자 통신원)

장년3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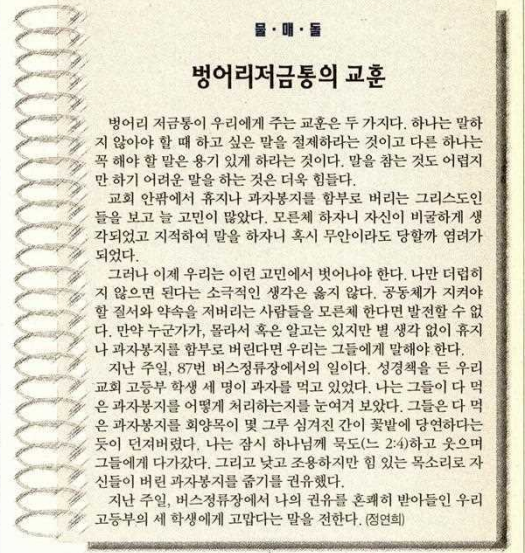
60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4주 전부터 특강 주제를 우리들의 마음들은 부풀어 있었다. 96년 6월 중 동안 장년3부에서 말씀 증거하셨던 김재철 목사님이 다시 회를 수 있기에 더욱 그랬다. 특강을 통해 회원들은 사느 날 동안 어른으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인지 고민하고, 세상 모든 것을 벗어놓고 영적으로 향상을 하는 삶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치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남아 있는 세월을 개수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며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일을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들은 자라되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승리의 삶 살아가는 60대의 충현 성도들이 되여지기를 기도드리다. (염미숙 통신원)

신혼가정부

결혼준비반을 아시나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저의 신혼가정부에서는 결혼준비반을 마련하고 여러분의 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한 가정을 세우시고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 만족와 기쁨을 얻도록 축복하셨는데, 새로운 가정의 성례도를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우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결혼준비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혼인예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물 · 뭍 · 들

병어리저금통의 교훈

병어리 저금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 가지다. 하나는 말하지 않아야 할 때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꼭 해야 할 때는 용기 있게 하라는 것이다. 말을 참는 것도 어렵지만 말이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 교회 안팎에서 휴지나 파자봉지를 함부로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는 고민이 많았다. 물론해 하더니 자신이 비굴하게 생각되었고 지적하여 말을 하더니 혹시 무안이라도 당할까 염려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만 더럽히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생각은 옳지 않다.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질서와 약속을 지키라는 사람들에게 모른채 한들 발전할 수 없다. 만약 누군가가, 몰라서 혹은 알고는 있지만 별생각 없이 휴지나 파자봉지를 함부로 버리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지난 주일, 87년 비성경양자회의의 일이다. 성경책을 든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 세 명이 파자를 먹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먹는 파자봉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눈여겨 보았다. 그들은 다 먹은 파자봉지를 희망목이 그릇 속서 숨겨진 간지 쫄뻑에 던져넣었다. 던지버렸다. 나는 잠시 하나님께 목도(느 2:4)하고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낮고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자신들이 버린 파자봉지를 줍기를 권하였다. 지난 주일, 비성경양자회의 나 권유를 흔쾌히 받아들인 우리 고등부의 세 학생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조원현)

대상: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부부
등록절차: 지선서 작성제출(평일은 사무국, 주일은 신촌가정부에서 신청)
교육일시 및 장소: 매 주일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교육관 202호
교육기간: 8주(결혼후 신촌가정부에서 계속 교육 수강할 수 있음)

3교구

성경통신 강좌 분기별 시상식 가져

4월 18일 성경통신 강좌 분기별 시상식을 했다. 3개월에 한번씩 시상식을 통해 서로를 격려해 주는 가운데 첫째는 67명, 작년에는 87명, 현재 참여하는 103명으로 교구 전체교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중 1지역 정통 강좌(94세)는 모범을 보시었고, 조동환목사로 참여한 이주영 어린이가 이에는 중학생이 되었다. 온 가족이 하는 구도에도 있어 참여도가 점점 높아가는 가운데 올해 첫 시상식을 가졌다. 교구 전체가 더 열심히 성경통신 강좌로 말씀공부를 한다면 7월 에 있는 시상식에는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성경 1독도 하고 하나님을 기뻐으로 영감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시상식에는 더 많은 교구 식구가 상 받기를 기도한다. (백영자 통신원)

12교구

성령의 담비 맞으며 가진
영적 교제의 시간

4월 27일은 기다리던 영성훈련의 날. 새벽에 일어나 날씨를 보니 흐리겠다. 공교롭게 교구에서 영성훈련때마다 이 날이 와서 이마에는 복슬복슬 땀기해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날도 일기예보를 보니 예외없이 비가 온다고 했다. 그러나 비나 눈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의 열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 특별히 강간한 것은 아니었지만 유치원을 걸작하고 아이를 데리고온 기사사. 해 외출장을 뒤로 하고 대리레이선 지도로 봉사하신 기사사 등 바쁜 일들을 뒤로

하고 헌신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어 177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승리의 날이었다. "성경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김영숙 전도사의 특강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게을리 등등으로 우선순위에 뒤로 미루었던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하는 시간이었다. 이어 교구목사님(김필수)의 특강,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로 나를 내어 주는 헌신과 겸손으로 내 자식 모범을 보여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은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탄피로 흡족함을 주는 시간이었다. 영성훈련이 회를 거듭할수록 하나님께 영적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이규숙 통신원)

14교구

어떠한 경우에도

교구에서는 대성일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방을 받기 위해 직장일로 뒤로 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기 위한 말씀을 들으리 마음을 오조비하여 100% 신장되는 바는 구역이 있는지 하면 어찌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직장에서 또한 병상에서 그것도 여의지 않으면 교회에서 구역자리를 만나 심방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심방중 오랫동안 패망으로 병원에 계신 한축복 성도님이 병상에서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 심방받던 중 주님을 영접한 직장의 동료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로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주일 교구도 이번 세인과 한영희가 있었는데 그분들 하나님과 생명의례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마나 기쁜 일인지요. 가장 귀한 것을 소중함 우리 부모 귀중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삶을 살아가게 다짐합니다. (이예나 통신원)

교회사적 / 쉬어가기

알림

1. 핸드벨과이어 신임단원모집
· 대상: 소년부부터 대학부까지
· 일시: 5월 매주 11:00
· 장소: 핸드벨실(문당 원전 3층)
2. 동서문화도 여전도회 연합회
· 일시: 3월(월) 11:00
· 장소: 내곡교회(교동동 1030-200)
3. 침상자: 여전도회 각 지회 회장
3월(일)을 주자로 주간출판 광고 및 지체물쓰기 접수 안내
4월(일)까지 마감합니다.

모임

1. 정기담화
· 일시: 5월(수) 정교회기도회 후
· 장소: 송원기도원
2. 장로 회교세미나(월)
· 일시: 4월(화) 새벽기도회 후
· 장소: 교육관 109호
3. 안수집사(월) 회교세미나(월)
· 일시: 3월(화) 새벽기도회 후
· 장소: 교육관 109호
4. 주일오우기도회
· 일시: 오늘 15:00
· 장소: 감리교회
5. 전도위원회 월례회
· 일시: 9월(수) 주일 15:30
· 장소: 신대교회 405호
6. 감사위원회 월례회
· 일시: 오늘 15:30

- 장소: 선교회 404호
7. 남녀전도회 연합회 월례회
· 일시: 8월(토) 15:00
· 장소: 봉당 앞 출발
8. 교정전도회 월례회
· 일시: 오늘 주일오우기도회 후
· 장소: 감리교회
9. 경찰전도회 월례회
· 일시: 9월(다) 주일 15:00
· 장소: 매추라기동
10. 경찰전도회 임원회의
· 일시: 오늘 15:30
· 장소: 경찰전도회 사무실
11. 설립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일시: 6월(목) 새벽기도회 후
· 장소: 설립인전도회실
12. 설립인전도회 임원회의
· 일시: 4월(화) 18:30
· 장소: 세영가든
13. 안수집사(월) 월례회 및 부부찬양연습
· 일시: 오늘 15:30
· 장소: 교육관 212호
14. 전사회의 제1회 월례회
· 일시: 5월(수) 수요일부예배 후
· 장소: 사당부실

- 남녀전도회
1. 루디아 3지회 월례회
· 일시: 7월(금) 연합구역예배 후
 2. 장로 회교세미나(월)
· 일시: 오늘 15:30

- 일시: 7월(금) 11:00
- 장소: 교육관 109호

결혼

1. 박병호 군(류남우 권사의 아들, 19교구)과 안선희 양(안병호 안수집사, 김숙자 집사의 딸, 17교구) / 4월(화) 12:30, 감리교회
2. 최규호 군(이우복 권사의 아들, 8교구)과 김효진 양(김광호 성도, 오필재 성도의 딸) / 5월(수) 14:00, 이화여자대 2층 별실(73-7111)
3. 정성민 군(정인선 안수집사, 임정일 집사의 아들, 2교구)과 이현숙 양(이정호 씨, 김장자 씨의 딸) / 6월(화) 12:00, 감리교회
4. 김충훈 군(김광호 성도, 김장자 권사의 아들, 17교구)과 김지미 양(김무남 씨, 허양순 씨의 딸) / 6월(목) 14:00, 감리교회
5. 김성민 군(김광호 씨, 전수자 씨의 아들)과 박경미 양(박광호 성도, 김영주 성도의 딸, 17교구) / 7월(금) 12:00, 감리교회
6. 윤준현 군(윤재홍 집사, 이옥란 집사의 아들, 14교구)과 이미리 양(이근일 씨, 손희은 집사의 딸) / 7월(금) 14:00, 감리교회
7. 김광호 군(김광호 장로, 이현남 권사의 아들, 9교구)과 이명진 양(이종일 성도, 이복재 집사의 딸) / 8월(토) 13:00, 감리교회

별세

1. 김영자 집사
(홍상인 성도 모친, 장영순 집사 시모, 15교구 신원6구역) / 4월 11일 별세, 13일 장례
2. 정승환 성도
(장숙자 집사 부친, 유석일 집사 장인, 17교구 수지2구역) / 4월 24일 별세, 26일 장례
3. 진근자 집사
(황용중 성도 모친, 김용미 권장 시모, 10교구 의정부구역) / 4월 26일 별세, 28일 장례
4. 정윤식 씨
(정무열 집사 부친, 이복자 권장 시모, 10교구 의정부구역) / 4월 26일 별세, 28일 장례
5. 김사순 권사
(김준호 집사 모친, 김동준 집사 시모, 17교구 신흥중구역) / 4월 28일 별세, 29일 장례

주수 및 전회번호 변경

1. 진혜태 집사, 변복희 권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9-1 현대1차A, 105-1002 (☎) 0331-265-1771, 0102-268-2880
2. 김원태 집사, 남희 집사
서울 서초구 방배2동 974-10 (☎) 597-3797

충현 증보의 향

- ① 김창인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사를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워가게 하소서.
- ② 오늘 개회되는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은사를 감사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의 도를 온전하게 하소서.
- ③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입문으로 바르게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 ④ 천안교도소와 충주중앙경찰청 앞에서 전도집회를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시며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게 하소서.
- ⑤ 27일 교회 주변 집중 전도의 날 행사를 통하여 교회 주변의 믿지 않는 영혼들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잘 자랄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소서.
- ⑥ 금년 여름에 실시될 단기선교와 농어촌전도 사업이 잘 준비되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 ⑦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⑧ 우리 교회가 전국인민을 양성하는 일에 더욱 힘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도록 은사를 허락하소서.
- ⑨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에 힘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하소서.
- ⑩ 각 전도회로 전도하는 전도회로 거듭나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 ⑪ 지금의 작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610	이동민	1	청년1		621	김혜실	12	청년1		630	박성준	19	청년1		640	이영진	19	청년1	
613	하용주	3	청년2		622	김정숙	13	베드로	강석란(14)	631	한상진	3	청년1		641	이영진	19	청년1	
614	김혜경	3	청년2		623	박동진	19	대학부		632	임지혜	3	청년1		642	이영진	19	청년1	
615	하영희	6	루디아		624	박 현	19	대학부		633	류문진	19	청년2		643	이영진	19	청년1	
616	최소희	7	대학부	배용옥(6)	625	임세라	18	청년1		634	김효진	4	마 울		644	이영진	19	청년1	
617	유상영	8	베드로		626	장정아	19	청년1	나광은(14)	635	이재철	6	중등부		645	이영진	19	청년1	
618	허 혁	10	에바다부	이강권(15)	627	장용장	19	청년1		636	박광호	14	장년1		646	이영진	19	청년1	
619	이은경	10	청년2	이광관(10)	628	신태희	19	청년1		637	이병진	193	고등부		647	이영진	19	청년1	
620	장미라	12	청년1		629	김정경	19	청년1											

※ 충현교회의 간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세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쉬어가기

우리 충현가족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 지난 4월 16일(금) 금요집회가 끝난 직후 주님 품에 안긴 고 신명전 성도의 가족입니다. 고인이 처음 집회를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입과신장 관장을 받은 후, 일년 반의 투병생활이 진행되는 동안 끝없는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로 도와 주신 출현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 내내 저희 가족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되어 섬겨 주시는 진실한 성도의 사랑을 한껏 맛보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기 직전까지 금요집회를 통해 기도해 주신 담임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발방한 이래 선전공부나나 심방하면서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신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 세가족부의 선배님들, 축석구역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교구 식구들에게 큰 사랑의 빛을 주셨습니다. 고인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깊은 마음 가운데

태서도 이 모든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그 고마움을 다 말씀드리겠노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신명전 성도 가족)

♥ 장주식 집사가 우리 집을 떠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10여년 전부터 '신한 사마리아인' 모임으로 함께 하면서 자 가정을 방문하며 말씀을 공부하던 그곳에서, 장 집사님은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겸손한 생활과 성실과 인내, 깊은 사랑의 이해심으로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착은 예수'들이 그를 몹시 그리워하면서 그와 함께 기쁜 날을 기다립니다. (김경현 집사)

섬·기·는·분·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원로목사 김창인
- 부목사
이흥성 김희수 이종대 박정환 김동석
김필수 전현종 김재현 이윤수 정갑진
정현민 조문환 조현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진식 권상현 서광진 이숙향
정혜성 이준경
- 협동목사 윤영택 박형용 노봉린
■ 선교사 이준고 안석필 김영태
■ 감사사 박인기 염현일
- 원로전도사 이두만 최순복
- 여전도사
정현희 현정남 정영자 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희재 손희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숙을 한영준
박정화 김영숙 김복순 김현식
- 교정전도사 박양덕
- 교육전도사
한승일 김영기 송현식 김창중 조재민
허용구 김병수 이종태 김윤식 김일순
- 선교전도사 정은희 박태양 이석연
- 평신도전도사
유병재 김현진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허요경 장기영
- 사무집회
윤영식 김희철 조선근 김은호 마성막
김자영 김경원 우기진 송동운 노광현
오진국 정하우 이병학 윤원현 최태민
박승준 임필성 송기홍 강은원 강모용
오정현 최현진 이 훈 남선우 서동석
송환향 정운성 김영길 문용구 조인재
김종구 최무진 김혜재 이창호 차진숙
김재택 정운성 김경남 이종식 손경주
이종국 송영철 김여은 이하영 박인진
김민관 이명옥 안종옥 이인성 최명환
임무현 이종실 최기용 이숙철 이갑재
전홍운 정동현 이경우 김단용 황영일
손 철 한승규 임기재 김준권 김영주
정홍식 김한기

예배 안내

구분	시각	장소
주일예배	I 오후 7:00	본당
	II 오후 9:00	본당
	III 오후 11:00	본당
	IV (매주 목요일(장제예배))	본당
	V 오후 7:30	본당
Engen Service		9:00 ~ 11:00
영양 예배		오후 5:00
수요 예배		1:00 ~ 2:00 (오후 7:30)
금요 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4:00

대한예수교 충현교회